

재미동포 차세대에 '독도는 한국땅' 알린다

기사입력 2016/06/08 14:57 송고

독도재단, 재미한국학교협의회와 MOU

(서울=연합뉴스) 강성철 기자 = 재미한국학교협의회(NAKS·회장 최미영)는 8일 오후 서울역 VIP 회의실에서 경상북도 독도재단(이사장 노진환)과 '독도 영토주권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' 업무협약(MOU)을 체결했다.

이에 따라 독도재단은 앞으로 NAKS 소속 한글학교 교사 초청 독도 탐방, NAKS 학술대회에 강사 파견 및 독도 사진 부스 운영, 교육용 독도 교재 배포 등에 나서게 된다.

NAKS는 재미동포 차세대에 한국어와 한국사 등을 가르치며 한민족의 정체성을 육성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. 1981년 미국 연방의 비영리단체로 출범했으며 현재 1천여 개의 한글학교에서 5천여 명의 교사가 4만여 명의 학생을 가르친다.

최미영 회장은 "독도의 중요성을 알리고 싶어도 제대로 된 교재가 없었는데 독도재단에서 도움을 준다 하니 힘이 난다"며 "백번 이야기를 듣는 것보다 독도에 직접 가보면 왜 독도가 소중한지 알 수 있을 것"이라고 밝혔다.

협약식에 참석한 조훈영 독도재단 사무처장은 "현지화되어가는 재미동포 차세대에 독도의 소중함을 알릴 수 있게 돼 기쁘다"며 "앞으로 독도 탐방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"고 말했다.



재미한국학교협의회는 8일 서울역 VIP 회의실에서 독도재단과 '독도 영토주권 강화를 위한 교육 홍보 업무협약'을 체결했다. 사진